제기동등 한의학 거리 "문화보존 특별지구로"

"보제원(普濟院)의 구휼(救恤)정신을 이어받아 이 지역이 전통 한의학 발전과 제세구민을 위한 상징적인 거리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용두동 일대 7만1200여평에 자리잡은 사단법인 서울약령시 협회(회장 박상종·56) 산하 1000여개 한의학 관련 업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협회는 이 지역을 '서울약령시 전통한의학문화보존특별지구'로 지정해 달라며 최근 시의회에 청원을 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가진 전통 한의학 시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60년대초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서울약령시의 역사는 1393년 조선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을 창건한 태조가 이 일대에 보제원을 만들어 여행자에 대한 무료 숙박과 병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토록 했다는 기록에 근거해 협회측은 이 지역이 600년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한의학의 본산이라고 강조한다. 더군다나 수입한약재가 이 지역을 점점 점령해오고 있는데다 시장의 쇠퇴 등으로 약령시를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박상종 회장은 "지난 95년 약령시협회를 출범시킨 뒤 각종 행사 등을 통해 해마다 1500명을 무료 진료하는 등 보제원의 구휼정신을 잇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단체인 협회차원에서는 각종 행사를 여는 것도 벅찬데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5분의 1 규모인 대구약령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3명의 공무원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제천 약초 향기 주머니 인기

백리향 등 원료로 방향제도 개발

약초의 고장 충북 제천에서 개발한 약초 향기 주머니가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약초 향기 주머니는 올해 제천 약초영농조합 법인(대표 김정기)에서 2만8천여개, 약초생활건강(대표 김태권)에서 1만6천여개 등 모두 4만4천여개를 판매, 1억여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지난 해 3만4천여개가 판매됐던 것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주요 판매처는 충남 금산의 도곡약초, 전남의 한성약초, 경북의 형주약초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제천 지역에서도 주요 관광지와 우편주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제천 약초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최근 천궁과 당귀, 백리향 등을 주원료로 하는 한방 방향제 '훈'을 제조하고 있는데 공기 청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수산면 상천리 약초생활건강에서는 약초 베개를 비롯, 쿠션과 스카프, 약초비누 등 약초를 이용해 만든 각종 특산품과 황기, 당귀 등도 대량 판매하고 있으며 황토염색 프로그램도 운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능성 '약술' 쏟아진다

다이어트용 막걸리도 출시 예정

주류시장에 기능성 약술 바람이 거세다. 관절염 비염 등 특정 질병의 치료는 물론 다이어트 효과를 낸다는 제품까지 다양한 술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1가지 약초로 만들었다는 국순당 백세주가 작년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운악산 술도가는 최근 강원대 바이오산업공학부 김종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신경통 관절염 등의 통증을 해소하고 변비도 치료할 수 있는 기능성 막걸리 '오래오래'를 선보였다. 오가피 우슬 구기자 등 6가지 한약 재를 원료로 만들어 약리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내년 1월엔 자양강장 효능을 갖춘 '이랴이랴'를, 4, 5월엔 다이어트용 막걸리를 연속 출시할 계획이다.

명주가도 바이오 벤처기업인 켐온과 손잡고 올해 안에 한약재로 만든 다이어트용 약술 '호리호리'를 선보일 방침이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 2000년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알코올 함량 13%(용량 300㎖)의 '마디마디'를 출시한 바 있다.

이 회사 황시봉 사장은 "기능성 약술 수요가 크게 늘어나 현재 2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콜레스테롤과 당뇨 등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능성 술을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에 위치한 억만장자 영농조합도 최근 쑥을 발효시켜 만든 기능성 약술 '천주'를 내놨다. 약리적 효능을 높이기 위해 누룩이나 발효제 효모 등 첨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 약술은 비염이나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위스키 수입업체인 바카디 마티니는 27가지 약초와 향료로 만든 프랑스산 리쿼 베네딕틴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혈액 순환과 피로 회복, 출산 여성의 건강 회복에 이용되는 이 술은 한 병 가격이 무려 7만3000원에 달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중소 주류업체들이 바이오 벤처나 대학연구소와 손잡고 틈새시장인 기능성 약술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한약 개발

황련해독탕에 대황 가미한 '청혈단'

혈관의 건강은 장수인의 조건. 하지만 혈관을 병들게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다.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31~39세 남성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dl 이하일 때 30년간 생존율은 84%. 하지만 이 수치가 2백60이상이면 67%로 줄어든다.

한의학에서 뇌졸중은 '오장의 기능이 균형을 잃고 기혈을 역란 또는 폐색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나타난다는 현대의학적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희대한방병원 중풍예방클리닉 조기호 교수팀은 최근 동의보감의 처방을 근간으로 뇌졸중과 같은 순환기질환을 예방하는 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약재료를 이용해 고지혈(高脂血)증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양의학적 치료법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1998년부터 5년간 경희대 약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약의 이름은 청혈단. 종래 동의보감에서 사용하던 황련해독탕에 대황을 가미했다.

미나리 아재비과의 약초 뿌리인 황련, 황벽나무 껍질인 황백, 그리고 황금과 치자에다 만성 변비를 개선하는 대황을 추가했다.

조교수팀은 이 약제를 가지고 고지혈증 환자 34명에게 투약한 결과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복용 4주 후 콜레스테롤은 평균 8.3%, 중성지방은 10.1%, 총지질은 8.6%를 낮추는 성과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고지혈증에 걸린 쥐 실험에선 중성지방이 1백55에서 79,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58에서 38로 낮아진 반면 좋은 영향을 주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1백55에서 1백66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위암·당뇨에 홍삼 큰 효과"

홍삼이 당뇨병과 위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토론토대 의과대학 블라드미르 벅산 교수와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성미경 교수팀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위한 고려홍삼의 효능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에서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성인형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홍삼을 섭취시킨 결과 혈당조절에 현저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고려대 의대 외과 서성옥·조민영 교수팀은 홍삼이 위암환자의 면역기능을 회복시켜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서교수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는 위암수술환자 42명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쳐 매일 홍삼분말 4.5g을 복용한 홍삼 투여군 22명과 비투여군 20명을 나눠 조사한 결과 5년간 생존율이 홍삼 비투여군은 38.5%인 데 비해 홍삼 투여군은 76.4%로 생존율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방목욕 건강관리 교육

보은농기센터, 강좌 개설

충북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가 농업인들의 겨울철 건강관리와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펼치고 있는 한방목욕 건강관리 순회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는 11월25부터 12월4일까지 7회에 걸쳐 여성농업인인 읍·면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솔잎·쑥·박하·녹차·모과·당귀 등 약초와 한방약재를 목욕 재료로 이용, 피부미용과 혈액순환 등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비롯해 좁은 실내공간 조성을 위한 벽걸이 조화 만들기 등의 강좌를 펼쳐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협회사정으로 인해 지난 2002년 12월호 한국생약보를 발행하지 못한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